

# 협력 통해 지방분권의 길 함께 찾는다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제1차 실무협의회 개최

전북·제주·세종·강원특별자치시도가 지난달 30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제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3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실무협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박현규 추진단장을 비롯해 4개 특별자치시·도(전북, 제주, 세종, 강원) 특별자치

제도업무 담당 실 국단장 및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성공적인 특별자치제도 정착을 목표로 연대·협력과제를 발굴하고 공동연구하기 위해 출범한 대한민국특별자치

시도협의회의 첫 공식 활동으로 올해 7월에 예정된 정기총회 안전 협의를 위해 마련됐다. 논의안건으로는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례 입법 요청시 부처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는 협조와 지원을 구하는 공동결의가 주를 이룬 가운데 법정협의체로 전환, 재정·조직 중심의 자치 분야 등 향후 특별자치시도의 정책 기반 마련에 필수적인 과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다음 달 25일에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될 국제포럼인 '제1회 전북포럼'을 홍보하고 4개 특별자치시도의 상호교류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도 요청했다.

또한, 4개 시도는 3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주포럼의 특별자치제도 발전 방향 논의의 세션도 참관하는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특례 개발, 국회 대응 등 상생발전의 지속적 추진을 약속했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4개 특별자치시도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이다"며 "과제발굴, 세미나 개최 등 공동활동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제주·세종·강원특별자치시도가 지난달 30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제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 전북 유기농 농산물, '장관상' 등 수상

### 2024년 대한민국 유기농스타상품 경진대회

전북자치도의 유기농 농산물의 우수성이 입증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1일 '대한민국 유기농 스타상품 경진대회'에서 도내 농산물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기공 부문에서 익산시 다송리사람들(대표 김현정)이 생산한 '고스라 유기농 잡아찌 간장소스'가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채소 부문에서는 정

읍시 향진이농장(대표 이명월)이 생산한 유기 '동근마'가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유기농 스타상품 경진대회'는 농식품부와 한국유기농협회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최고 권위 유기농 식품 경진대회로, 이번 대회는 6월 1일까지 열리는 부산 벡스코 '제23회 친환경 유기농 무역박람회'

전시장에서 개최됐다.

올해는 곡류, 채소, 과일, 가공식품 4개 분야에서 400여 개 품목이 출품됐으며, 12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색, 모양, 식미감, 친환경인증 보유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한 익산 다송리사람들(대표 김현정)은 2008년도에 설립됐으며, 전통제조 방식을 고수해 5,000여개의 전통용기를 이용한 된장, 고추장, 청국장, 간장, 현미식초를 생산하고 있다. 생산물을 해외로도 수출하는 등 우리 전통의 맛을 널리 전파하고 있다.

특히 10만여㎡ 규모의 고스라 향아리 수목원을 아름답게 조성해 해마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앞으로 환경보전과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탄소 감축 농업 기반 구축,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 등을 통해 우수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희민 사)전북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농산물이 널리 홍보돼 친환경 농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도,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준수 당부

### 전국, 올해 사망 환자 발생... 어패류 익혀먹기, 바닷물 접촉 주의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지난달 31일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주로 여름철 서남해안지역에서 발생하며, 발열, 오한, 혈압저하와 발진, 수포 등 피부병변

증상을 나타낸다. 치명률은 약 50%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의 자료에 따르면 비브리오패혈증은 2022년 46명에서 2023년 69명으로 증가했으며, 전북의 경우 2명에서 3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현재(31일) 기준 전국에서 3

명이 발생했으며 그중 1명이 사망했다.

비브리오패혈균은 해수 온도가 18℃ 이상일 때 증식하는 호염성세균으로, 주로 해수, 갯벌, 어패류 등 광범위한 해양 환경에서 서식한다. 발생 시기는 매년 5~6월경에 시작해 8~9월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예방수칙은 △어패류 완전히 익혀 먹기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과 접촉을 피하고, 접촉 시 깨끗한 물과 비누로 씻기 △생굴이나 어패류 취급

시 장갑 착용 △어패류는 5℃ 이하 저온 저장 및 흐르는 수돗물에 씻은 후 조리 △사소한 도마와 칼 소독 등이 있다.

강영석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의료국장은 "모든 도민이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안전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며, "특히 간염, 간경화 등 간 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면역저하자 등은 고위험군으로 특별히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는 법무부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 지난달 30일 전주한벽문화관에서 귀화자와 국적회복자 39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 "새로운 기회 맞이하게 된 전북특별자치도민 환영"

### 결혼이민자·국적회복자 39명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로운 가족을 맞았다. 전북자치도는 법무부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 지난달 30일 전주한벽문화관에서 귀화자와 국적회복자 39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은 제17회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고,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전북특별자치도민이 되는 국적취득자들의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올해는 전북자치도의 대표적인 관광자인 전주 한옥마을 내 한벽문화관에서 참석자 정원이 우리나라 전통의상인 한복을 입고 진행되어 특별함을 더했다.

베트남인 레티리(35)씨를 비롯해 결혼이민자 귀화자 34명, 국적회복자 5명 등 총 39명의 전북지역 체류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이 국적증서를 받고 대한민국 국민이자 전북특별자치도민이 되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국적취득을 축하하며, 국적취득자들이 전북특별자치도민이 되는 것을 환영하는 의미로 각종 생필품 등이 들어 있

는 전북사랑기프트를 증정했다. 전북자치도는 결혼이민자 등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및 문화교육, 한국사회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국적취득 면접시험을 공부할 수 있는 모바일 음성교재를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으로 살아가게 된 특별한 도민이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전북도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만 이와 함께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진정한 전북특별자치도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국적취득자에게 국적취득 수수료 30만원을 지원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가 신규 입국 결혼이민자와 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의 멘토가 되어 국적취득 노하우를 공유하는 '결혼이민자 365 언니 멘토단' 사업을 처음 시행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